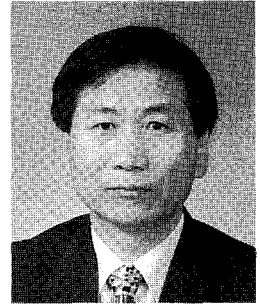


물류는 유망산업



(사)한국물류협회 회장
(사)한국파렛트협회 부회장
한국파렛트풀(주) 대표이사
서 병 루

지금까지 우리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여, 세계 10위 권의 경제규모를 실현시켜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대륙이 세계의 생산 거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단순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한국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본인은 어쩌면 당연한 과정이라고 보고 싶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1인당 GNP

가 10,000달러를 넘어서는 순간 필연적으로 고임금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그에 따라 제조원가가 높아지게 되어 자국에서 생산한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2차대전후 미국경제가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일본 상품에 지배되게 되었고 80년대 후반 들어 일본 기업들 역시 공장들을 동남아시아나 중국으로 급속하게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우리 한국 기업들도 90년대 들어와 후발국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는 임금이 저렴한 국가인 동남아시아, 최근에는 중국대륙으로 공장을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선진국으로부터 후발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며 생존의 전략이다.

한 국가의 산업 발전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류 초기의 역사는 1차 산업인 농업이 주도하여왔고, 유럽에서 출발한 산업혁명은 2차 산업인 공업 중심으로 국가 경제가 성장하여 왔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숙한 자본 경제 국가가 되면 3차 산업인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제 흐름 하에서 보다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나 국가에서 보다 큰 시장으로 상품이나 재화가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물류라는 분야가 점점 중요하게 부각하고 있다. 우리가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자들을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물류가 제조업에 있어서나 유통업에 있어서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 수단이 된 것이다.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이나 이들을 판매하는 유통업 모두에게 물류산업은 핵심 역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자들을 포장하고 하역하며 보관하고 수송하는 일련의 물류 과정들이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과정보다 비용을 줄이고 신속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물류산업이 우리 나라에서는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다. 제조업 중심의 세계, 금융지원 시스템의 체제하에서 서비스업으로 대접받고 있는 물류산업은 민간 기업차원에서나

국가 정부 정책에서나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물류산업을 육성하여 제조업, 유통업 등 타 산업과 연계하여 한국경제를 경쟁력이 강하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더구나 한반도를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많은 매스컴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다.

부산항, 광양항을 국제 중심 항구로 만들고 철도, 도로 등을 확충하고 곳곳에 대단위 물류 단지를 조성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물류산업을 제조업, 유통업과 차별하지 말고 미래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치성,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분리하여 중요한 산업 서비스업으로 우대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